

구약개관 5과 - 출애굽과 광야시대

부르심과 소명

이종현 목사(예배기획)

enchristo9@naver.com

010.8816.9858

† 출애굽과 광야시대

교재 p.76

족장시대 이후 이주한 이스라엘은 400년 간 애굽에서 종노릇하였으며, 하나님은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셨다. 모세는 부르심을 따라 소명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하는 공동체로 훈련을 받게 되었다.

† 출애굽기

1. 이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베엘레 쉐모트라 하며 번역하면 ‘그리고 이것들이 그 이름들이다’라는 의미이다. 히브리어 성경은 가장 첫 부분을 제목으로 삼는다.

(출 1:1, 개정)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헬라어 성경에서는 엑소도스($\epsilon\kappa\sigma\delta\omega\varsigma$)라 하며 번역하면 ‘탈출’, ‘출발’, ‘밖으로 나감’이라는 의미이다. 라틴어 성경에서는 리베르 엑소두스(Liber Exodus)라 하며 ‘애굽탈출기’라는 의미이며 약어로는 ‘EX’이다. 영어 성경에서는 엑소더스(Exodus)라 하며 한글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의 제목을 중국식으로 표기한 ‘출애굽기’라 한다.

2. 기록자

‘다른 의견도 일부 있으나’ 대체적으로 모세를 기록자로 인정하고 있다.

3. 위치

출애굽기는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이며, 구약의 역사서 17권 중에서 두 번째에 위치한다. 모세오경의 제1서인 창세기가 민족사의 배경이 되는 아브라함의 ‘가족사’를 보여준다면, 출애굽기는 ‘민족’의 탄생을 보여준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은 ‘민족’으로서 역사 속에 모습을 나타낸다.

4. 배경

요셉을 총리로 기용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환대한 애굽의 왕조가 교체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일어났다. 왕조가 교체된 역사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애굽에서 번성하며 특혜를 받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학대를 받는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했다.

5. 기록목적

1)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 아브람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창 15:13, 개정)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창 15:14, 개정)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 오리라

- 언약의 성취

(출 12:36, 개정)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하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께 하시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2)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임을 선포하기 위해

출애굽기는 구속사의 핵심이자 구약의 십자가 사건인 출애굽(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택한 백성을 압제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전능하신 주권을 계시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출 7:17, 개정)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3)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목적과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시내산을 중심으로 일어난 ‘**율법 제정(십계명)**’과 ‘**성막 건립**’ 사건을 통하여 선민(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신정국가(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임을 알리기 위해 기록되었다.

(출 19:5, 개정)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출 19:6, 개정)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 출애굽기의 중요성

교재 p.76

- 구약성경에 나타난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나만 들라고 한다면 주저 없이 ‘출애굽 사건’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제 우리들이 출애굽 사건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배우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를 배우게 되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6. 전체보기

| 크게 보기 | 애굽 탈출 1:1-13:16 | | | | 광야 13:17 -18:27 | 시내산 언약 19:1-40:38 | | | |
|-------|---------------------|-----------|-----|---------------------------------|---------------------------|----------------------|-----------|---------------|--------------------|
| 작게 보기 | 학대 받는 백성 | 모세를 준비 하심 | 9재앙 | 유월절 (10번째 재앙) 11:1 -13:16 | 시내산 으로 13:17 -18:27 | 율법/ 십계명 | 성막/ 제도 | 금 송아지 두 번째 돌판 | 성막 제작과 봉헌 35-40 |
| 핵심 주제 |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 | | | 구원 |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 | | | |
| 교재 구분 | 부르심과 소명 ‘출애굽과 광야시대’ | | | | | | | | |
| 장소 | 애굽 | | | | 광야 | 시내산 | | | |
| 기간 | 약 430년 | | | | 2개월 | 10개월 | | | |

7. 자세히 보기

제1부 애굽 탈출(1:1-13:16)

I. 학대 받는 백성(1:1-1:22)

1.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 –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

(출 1:7, 개정)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크게 번성하였나?

(출 12:37, 개정)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숙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육십만 가량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므로 여자와 어린 아이까지 포함한다면 적어도 200만 명 이상에 달한다고 볼 수 있다.

cf. 이스라엘이 민족적 순수성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창 46:33, 개정)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창 46:34, 개정)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 거주하기 시작할 당시 요셉은 바로가 생업에 대한 질문할 때 목축업으로 대답할 것을 미리 말해둔다. 이유는 애굽인들은 목축을 가증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이에 그들의 거주지는 애굽의 본토와 떨어진 고센 지역으로 정해지게 되고,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분열왕국 시기 이후 앗수르가 혼합정책을 사용한 것과 대조적이다.

2. 학대받는 이스라엘 자손들

(출 1:10, 개정)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출 1:11, 개정)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¹⁾ 비둘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출 1:13, 개정)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출 1:22, 개정)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II. 모세를 준비하심(2:1-4:31)

(출 2:10, 개정)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 모세(moses) 교재 p.79

모세는 애굽의 용어로 ‘어린아이’ 또는 ‘아들’이라는 뜻이며, 이집트 왕족의 이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아멘모세, 투트모세 등). 히브리어로는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이다. 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으나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물에서 건져냈다.

(출 2:23, 개정) 여려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출 3:7, 개정)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 부르짖음

‘부르짖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짜아크’는 고통뿐만 아니라 불평까지도 의미한다. 그것은 단지 고통으로 인한 인간의 외침이지만, 하나님은 이를 들으신다.²⁾

(출 3:2, 개정)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출 3:5, 개정)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는가?

신을 벗는 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경외와 존경을 나타내는 문화적, 종교적인 관습이었다.

고대 세계에서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다.

영적인 의미로는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복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1)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식량과 무기들을 공급 또는 보관했던 성읍.

2) W.Brueggemann 외 저자, 차준희 옮김, 『구약신학과의 만남』, 프리징 아카데미, 2010, p.182-183.

(출 3:13, 개정)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출 3:14, 개정)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 3:15, 개정) 하나님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이유 : 고대에서는 신의 이름을 통해 신의 성격이나 정체를 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
 - 고대세계에서 이름을 알려주는 행위는 관계를 맺는 친밀감의 표시이다.
 -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I AM WHO I AM) 또는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될 존재다(I WILL BE WHO I WILL BE) 교재 p.79
- ① 스스로 존재하는 분 :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
 - ② 스스로 충족하시는 분 : 부족함이 없으신 분
 - ③ 스스로 불변하시는 분 : 변하지 않으시며,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

III. 9재앙(5:1-10:29)

1.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다

(출 5:1, 개정)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출 5:2, 개정)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출 5:7, 개정)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출 5:8, 개정)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르므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

- 바로는 여호와를 노예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생각하여 열등하게 생각했다.

(출 6:1, 개정)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출 6:2, 개정)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출 6:3, 개정)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했고 여호와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렀지만(출 6:2~3), 하나님은 조상들과 맷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지키실 것이다(출 2:24:6:5). 하나님은 신실하고 신뢰할만한 분이시다.³⁾

3) 위의 책, p.182-183.

2. 9가지 재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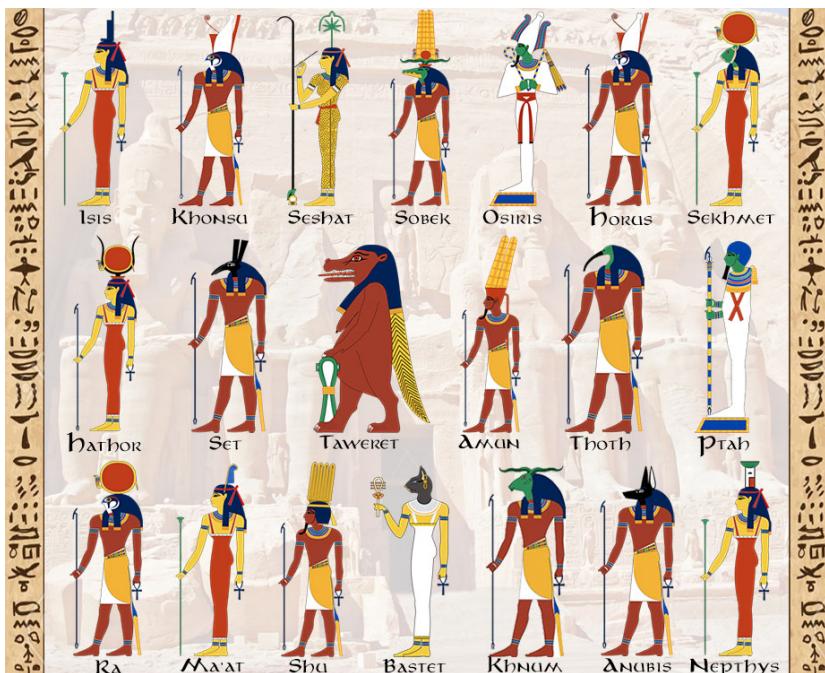
교재 p.80

- 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내려진 형벌
- ② 애굽의 모든 우상에게 내린 심판으로서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나타냄(출 12:12)
- ③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 세력에 대한 하나님과 그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를 나타냄
- ④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냄

| 순서 | 재앙 | 내용 | 참조 구절 | 관련된 애굽 신 |
|----|--------|---|--------------|---|
| 1 | 피 | 생명의 젖줄로 여긴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고 오염됨 | 출 7:13-25 | 나일 강을 주관한다는 우상 하파(Hapi), 나일강의 수호신이자 창조의 신으로 숭배하던 크눔(Khnum) |
| 2 | 개구리 | 다산의 신으로 섬기던 개구리가 사방에 뒤덮여 큰 고통에 처함 | 출 8:1-15 | 개구리 형상을 한 우상(여신) 헥트(Heqt) |
| 3 | 이(각다귀) | 땅의 티끌이 이(각다귀)로 변해 사람과 가축을 괴롭힘 | 출 8:16-19 | 애굽 사람들의 토신(土神) 격인 셉(Seb) |
| 4 | 파리 | 애굽 온 땅에 파리로 뒤덮임 | 출 8:20-32 | 파리 형상의 우상 핫콕(Hatkok) |
| 5 | 심한 돌림병 | 애굽 온 땅에 가축이 몰사함 | 출 9:1-7 | 암소 형상의 모신(母神) 하돌(Hathor). 힘과 다산의 황소 우상 아피스(Apis), 매의 형상을 가진 호루스(Horus) 생명과 사망을 주관한다고 여긴 우상 오시리스(Osiris) |
| 6 | 악성 종기 | 화덕의 재가 티끌이 되어 애굽 인들과 그 짐승들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나게 함 | 출 9:8-12 | 질병의 수호신 타이פון(Typhon), 의술의 우상 임호텝(Imhotep) |
| 7 | 우박 | 애굽인과 짐승 및 채소 위에 우박이 내림 | 출 9:13-35 | 하늘의 여신으로 해, 달, 별들의 어미 누(Nut), 기후를 주관하는 우상 슈(Shu), 폭풍과 농작물의 수호신 셋(Seth) |
| 8 | 메뚜기 | 수많은 메뚜기 떼가 애굽의 채소와 나무를 먹어치움 | 출 10:1-20 | 메뚜기 떼를 막는 신 세라피아(Serapia), 폭풍과 농작물의 수호신 셋(Seth) |
| 9 | 흑암 | 3일 간 애굽 전역에 흑암이 임함 | 출 10:21-29 | 모든 종류의 태양신, 즉 라(Ra), 아톤(Aton), 호루스(Horus) 등 |
| 10 | 초태생 사망 | 애굽 땅의 모든 사람과 짐승의 처음 난 것에게 죽음이 임함 | 출 11:1-12:36 | 생명과 치료의 여신 이시스(Isis),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는 신 오시리스(Osiris) |

(출 7:17, 개정)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불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출 8:22, 개정)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출 10:2, 개정)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출 8:19, 개정)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고대 이집트의 신들

IV. 유월절(10번째 재앙) 교재 p.81

•유월절(逾越節, Passover)

(출 12:13, 개정)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Ex 12:13, NIV) The blood will be a sign for you on the houses where you are: and when I see the blood, I will pass over you. No destructive plague will touch you when I strike Egypt.

‘넘어가다’(pass over), ‘지나가다’, ‘…을 뛰어넘다’는 뜻으로, 출애굽 전날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 장자들을 죽일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넘어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은 데서 유래된 절기 이름이다(출 12:11). 즉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된 해방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다. 헬라어 명칭인 ‘파스카’는 히브리어 ‘페사흐’를 음사(音寫)한 것이다(눅 2:41). 칠칠절, 초막 절과 함께 이스라엘 3대 절기. 정월(니산 월, 아빕 월, 태양력으로는 3-4월경) 14일 저녁에 지켜졌다. 유월절을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과연 어떤 분(해방자요, 구원과 은혜의 주)이심을 깨닫게 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신앙적 행위라 할 수 있다(왕하 23:21).

•유월절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이 유월절을 지키셨고(마 26:17-19), 또 유월절 기간에 거룩한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으며(마 26:26-28), 그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막 14:1). 신약성경은 철저히 유월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야적 사역과 연관시켜 설명한다.

특히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의 십자가 사건과 거룩한 성만찬으로 연결되고 또 히브리인들과 하나님과의 옛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다(마 26:26-29). 마가복음은 어린 양 예수의 희생으로 이뤄진 유월절을 새로운 출애굽 사건으로 재해석하고자 했다(막 14:12-25).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유월절에 일어났다고 보고하였고(요 18:28; 19:14). 유월절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 예수로 소개한다(요 1:29).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유월절 양에 비유했으며(고전 5:7), 베드로의 첫 번째 서신은 유월절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인해 유월절 전례문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벧전 1:2-3, 19; 2:18-25; 3:18-22; 4:12-5:10).

더욱이 히브리서 기자는 유월절 양이신 예수께서 십자가 대속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설명하면서 그 새 언약은 구약의 옛 언약보다 낫다고 역설한다(히 4:14-10:18). 즉, 유월절 양이신 예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더 이상 대속의 양이 필요 없게 되었다. 이제 모든 죄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속죄와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⁴⁾

제2부 광야에서(13:17-18:27)

(출 13:17, 개정)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출 13:18, 개정)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V. 시내산으로

지도 ②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

(출 13:20, 개정) 그들이 숙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단에 장막을 치니

(출 13:21, 개정)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지도 ③ 홍해를 건너

(출 14:2, 개정)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출 14:4, 개정)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출 14:21, 개정)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4) 가스펠서브편집부, 『라이프성경사전』, 생명의 말씀사, 2006.

지도 ④ 목마름을 불평함

(출 15:23, 개정)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출 15:24, 개정)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출 15:25, 개정)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지도 ⑤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심

(출 16:2, 개정)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출 16:3, 개정)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동안 만나를 먹었을까?

출애굽하던 해 2월 15일(출 16:1)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소산물을 먹던 날, 곧 출애굽 41년째 되던 해의 유월절 이튿날(1월 15일)에 만나가 그쳤다(수 5:12).

지도 ⑥ 바위에서 물이 나옴

(출 17:3, 개정)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출 17:6, 개정)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지도 ⑦ 아말렉과 싸움 - 아론과 훌

(출 17:8, 개정) 그 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출 17:14, 개정)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 하게 하리라

VII. 율법과 십계명(19:1-24:18)

지도 ⑧ 십계명과 율법을 받음 / 시내산 언약

(출 19:5, 개정)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출 19:6, 개정)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 24:7, 개정)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출 24:8, 개정)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VII. 성막과 제도(25:1-31:18)

교재 p.82

•성막(25:1-27:21)

광야 생활부터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거룩한 처소.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그 백성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출 25:8). 성막은 애굽을 출발한 지 2년째 되는 해에 시내 산 아래서 세워진 후(출 40:2, 17)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진행할 때마다 항상 선행(先行)했다(민 10:33-36). 가나안 정착 후 다윗은 이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솔로몬 성전의 완성과 함께 성막은 성전 건물로 대체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옛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성전에 대한 그림자로 간주된다(히 8:5).⁵⁾

또한 이로써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시는 방법이 바뀌게 된다. 특정한 상황에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항상 함께하시게 된 것이다.⁶⁾

•성막을 주신 이유

- ①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
- ②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에 반하는 인간들의 죄악에 관해 교훈하시기 위함
- ③ 죄인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보이시기 위함

VIII. 금송아지 사건과 두 번째 돌판(32:1-34:35)

•금송아지 사건(32:1-35)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에 오른 후 내려옴이 더뎌지자,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한 백성들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단을 쌓아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그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으셨다.

(출 32:19, 개정)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 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출 32:32, 개정)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

5) 가스펠서브편집부, 『라이프성경사전』, 생명의 말씀사, 2006.

6) 브루스 C. 버치 외, 차준희 옮김, 『신학의 렌즈로 본 구약개관』, 한국구약학연구소총서001, 새물결플러스, 2016, p.204.

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cf. 백성들이 만든 송아지 형상의 우상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애굽의 황소 우상인 아피스(apis, 10가지 재앙 중 5번째 재앙 참조)를 본떠 만든 것이다. 그 우상은 애굽사람들이 주신(主神)으로 섬기던 우상으로, 당시 애굽 사람들은 젊고 힘 좋은 황소 혹은 암소를 섹스와 다산(多產)의 상징이라고 보았다.

•두 번째 돌판(34:1-35)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언약을 주시며 우상을 멀리할 것과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하셨다.

IX. 성막제작 및 봉헌(35:1-40:38)

•모세가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을 명령하자 백성들은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다. 가져오기를 그치라 명령할 정도로 많은 예물이 모였다. 성막봉헌식을 거행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다고 구름이 그 위를 덮었다(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음을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내심).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 구름을 따라 이동했다.

✠ 민수기

교재 p.86-87

1. 이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베미드바르(בְּמִדְבָּר)라 하며 ‘광야에서’라는 의미이다.

(민 1:1, 개정)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헬라어 성경에서는 아리트모이(αριθμοί)라고 하며 ‘숫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영어성경에서는 ‘Numbers’, 한글성경에서는 ‘민수기(民數記)’라고 한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두 번의 계수(시내 산, 모압 평지)에서 그 이름이 비롯되었다.

2. 기록자

‘다른 의견도 일부 있으나’ 대체적으로 모세를 기록자로 인정하고 있다.

“모세가 쓴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세적인(mosaic, but not mosaic)”

3. 위치

민수기는 구약성경 39권 중 네 번째에 위치한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출애굽기에서 그들을 구속하시며

례위기에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신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그들을 훈련시키신다.

신명기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상기시킨다.

민수기에는 레위기의 율법을 가지고 광야 38여 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훈련받는 모습을 보여준다.

4. 민수기의 배경과 무대

행진의 출발지인 시내산. 열두 정탐꾼을 파견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실패의 장소 가데스 바네아. 열두 정탐꾼이 두루 탐지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38년 동안 유랑한 바란 광야. 가나안 입성 전 마지막 정착했던 요단 동편의 모압 평원. 또 거기까지 거쳐온 애돔과 모압이 본서의 주요 무대다.

5. 민수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본서는 곳곳에서 이스라엘의 불신과 실패,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지치고 힘든 여정에서 오는 원망과 불평은 곧 믿음의 실패와 수많은 장애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역사를 택한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며 고치고 치유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광야 생활의 모습은 놋뱀 사건(21:4-9)이 단적으로 보여 주듯이 세상을 볼 때는 실족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된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신앙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6. 전체 보기

| 크게 보기 | 시내산에서 1:1-10:10 | | | | 시내산에서 모압까지 10:11-21:35 | | | | 모압평지에서 22:1-36:13 | | | | | | | |
|-------|-------------------------|----------------|-----------|-----------------|------------------------|-----------|-------------|--------------------|-------------------|-----------------|------------|-----------------|--------------|--|--|--|
| | 1차 인구조사 (출애굽 세대) | 레위자손 인구조사 및 임무 | 죗값과 구별 방법 | 유월 절과 구름, 나팔 소리 | 행군과 장로 칠십인 | 가나안 정탐 | 제사와 제사장의 의무 | 미리암, 아론의 죽음/ 전쟁 승리 | 발락과 발람 | 2차 인구조사 (광야 세대) | 제사/ 절기/ 서원 | 미디안 전쟁 승리/ 땅 분배 | 도피 성/ 딸들의 유산 | | | |
| 작게 보기 | 1-2 | 3-4 | 5-8 | 9:1-10:10 | 10:11 12:16 | 13 -14 | 15 -19 | 20 -21 | 22 -25 | 26 -27 | 28 -30 | 31 -34 | 35 -36 | | | |
| 핵심 주제 | 약속의 땅을 향한 구세대의 준비 | | | | 반역 및 광야에서의 훈련 | | | | 약속의 땅을 향한 신세대의 준비 | | | | | | | |
| 교재 구분 | 5과 출애굽과 광야시대, 6과 소유와 율법 | | | | | | | | | | | | | | | |
| 장소 | 시내산 | | | 가데스바네아 | 광야 | | 모압 평지 | | | | | | | | | |
| 기간 | 약 20일 | | | 약 38년 3개월 10일 | | | | 약 5개월 | | | | | | | | |

7. 민수기의 주요 장면

제1부 시내산에서

• 1차 인구조사(1:1-54)

-목적 :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하나님의 군대였다. 따라서 체계적인 인구조사를 통해, ①광야에서 질서 있게 행진하고, ②가나안과의 전투를 효과적으로 치르기 위해 이스라엘의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었다.

(민 1:2, 개정)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민 1:3, 개정) 이스라엘 중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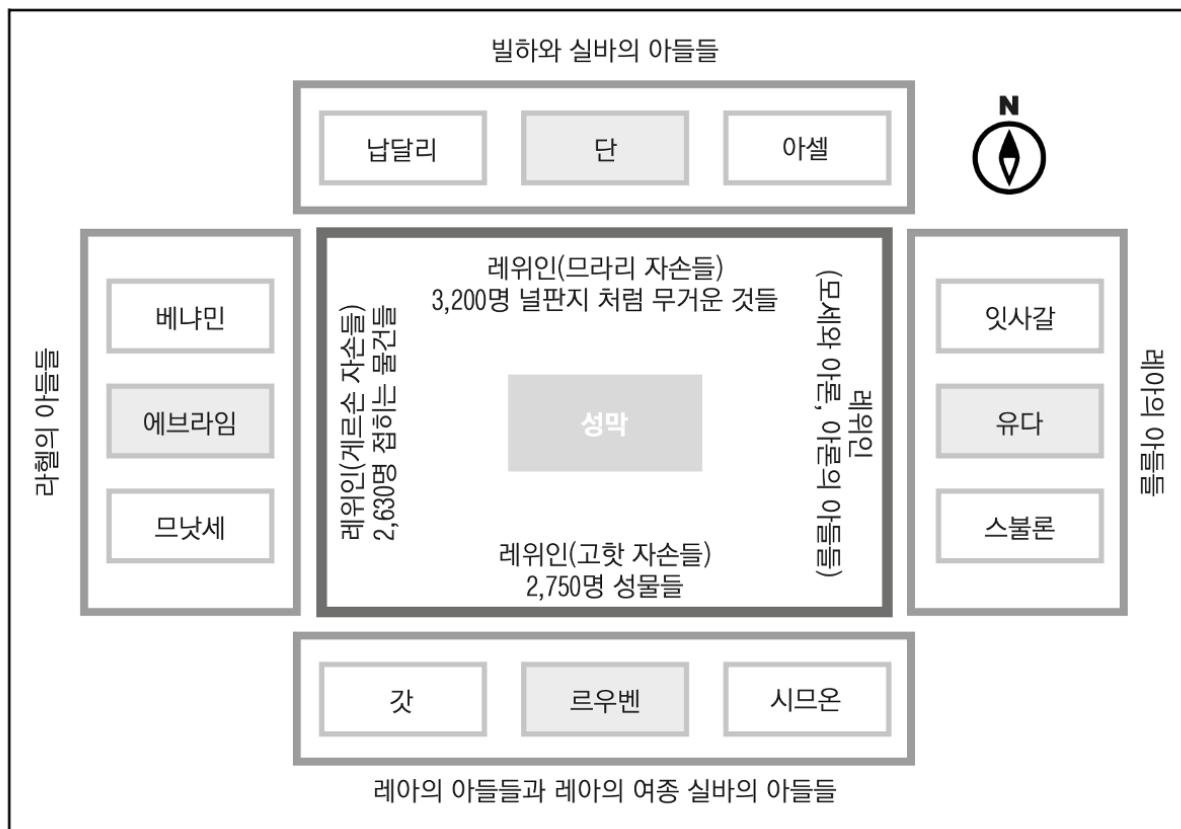
-인원 : 총 603,550명

20세 이상의 성년 남자만 계수했으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자는 250만 명가량 되었을 것.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언약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성취됨.

(창 12:2, 개정)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 진영을 갖춤(2:1-33)

(민 2:2, 개정)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 레위자손의 인구조사(3-4)

- 레위인이란?

레위 족속. 레위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명칭(출 6:16-25).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며, 또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였다(민 8:16).

(민 3:12, 개정)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으니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 족속은 계르손, 고핫, 므라리의 세 아들을 통해 구성되었는데, 그중 제사장 직책은 레위의 둘째 아들인 고핫 계열의 아론 자손이 담당했다(출 28:1).

(출 28:1, 개정)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네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 유월절과 구름, 나팔소리

(민 9:15, 개정)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민 9:16, 개정)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민 9:17, 개정)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성막 위의 구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막 위에서 때로는 머물고 때로는 떠오르기도 하는 구름은 하나님의 인도와 동행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을 통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그리고 매순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제2부 시내산에서 모압까지

- 시내산에서 떠난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한다.

- 다베라 사건(11:1-3) *지도 (9)번 여정 ‘다베라(불사름)’

(민 11:1, 개정)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민 11:2, 개정)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민 11:3, 개정) 그 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 메추라기 사건(11:31-35) *지도 (10)번 여정 ‘기브롯 핫다아와(탐욕의 무덤)’

(민 11:4, 개정)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민 11:5, 개정)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민 11:31, 개정)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민 11:32, 개정) 백성이 일어나 그 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민 11:33, 개정)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민 11:34, 개정) 그 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열 호멜 : 2,200리터

-하나님은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고기를 허락하셨으나 불편을 선동하여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에게는 엄한 징벌을 내리셨다.

- 가데스 바네아(13:1-33) *지도 (12)번 여정 ~ (14)번 여정

(민 14:28, 개정)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 14:34, 개정)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사십 일의 하루를 일 년으로 쳐서 그 사십 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 바위에서 물이 나옴(20:1-13) *지도 (16)번 여정

(민 20:8, 개정)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민 20:10, 개정)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공동번역 : 반역자들아, 들어라. 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주랴?)

(민 20:11, 개정)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민 20:12, 개정)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 우회 *지도 (17)번 여정

(민 20:21, 개정) 애동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아키니라

제3부 모압 평지에서 지도참조 “요단강 동쪽 점령”

- 모압왕 발락과 점쟁이 발람(22:1-24:25)

모압 왕 발락이 점쟁이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통해 발람에게 경고하시고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다.

(민 24:10, 개정)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는 것이었는데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 두 번째 인구 조사(26:1-65)

첫 번째 조사 이후 38년 만에 행해진 것으로 앨르아살이 계수했다.
인원은 601,730명이었다. 구세대는 모두 죽고, 신세대가 등장한 것이다.

- 땅의 분배 - 요단강 동쪽 지파들(32:1-42)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쪽 지역 분배를 요구했다. 전쟁의 선봉대에 서는 조건으로 수용되었다.

- 레위인의 성읍과 도피성

레위인들에게는 48성읍이 주어졌다. 그 중에 6개의 성읍은 도피성으로 지정하도록 하셨다. 요단동쪽 3개, 요단 서쪽 3개이다. 도피성에는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살인했을 때 도망칠 수 있는 장소였다. 이

는 복수로 인한 유혈이 생기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도피성에 범죄자가 있을 때 재판이 열렸고, 그의 죄가 유죄로 밝혀지면 그를 죽였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속죄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죽음은 도피성에 피신한 살인자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비로소 그 피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